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호텔행사

△△회 송년회와 XX호텔, 나라안녕과 민족통일을 위한 기념회와 OO호텔 OO홀... 불교계의 크고 작은 행사들중 그 장소가 호텔인 경우를 종종 본다. 많은 사람이 물리는 경우 주자와 식사 등의 편리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호텔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행사가 아닌,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등의 순서로 이뤄지는 법회식의 불교행사도 호텔에서 치러지는 모습은 어둡하기 그지 없다.

사찰에서 하는 것이 더 여법한 경우가 있는데도 호텔을 이용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수년 전 전국신도회가 매년 여는 신년기념법회를 호텔에서 개최해 지탄을 받았고, 일부 지방에서는 봉축행사 권기모임까지 호텔에서 가져 반목을 사기도 했다.

아무래도 큰 비용이 드는 호텔에 대형행사장 만들어야 아직 우리 사회에서 '호텔사치'를 연상케 하고, 무소유와 청빈(淸貧)의 이미지를 주는 불교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삼보장재를 낭비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불교계가 호텔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데는 시책대로 '풀이 난다'는 이유만은 아니다. 불교계에 변화한 대형 행사장이 없어 '올해 겨자 먹기식'으로 호텔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천만불자를 자랑하는 불교계지만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하려고 해도 동시통역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대형 회관이 별로 없고, 몇 백명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행사를 가질 만한 적절한 공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불교계는 그 어느 곳보다 문화행사가 많이 열리는 곳이지만 반듯한 장문 전시장이나 일반 대중들을 흡수할 문화공연장 하나 없는 실정이다.

그만 관리체제 이후 불교계의 호텔행사는 많이 사라졌다. 사찰에서 어렵게 봉행할 수도 있는 행사를 호텔에서 '과시용' 또는 '체면치레용'으로 개최하는 일은 이제 지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도원신문 기자(psd0@buddhapia.com)

'사찰재정공개 의무화' 백만명 서명운동 전개

재가연대, 조계종에 법 제·개정 요구키로

8월16일 '관람료 사찰' 포럼 열어
 고산스님 "직영사찰부터 실시" 밝혀

사찰재정 투명화와 사찰운영의 사부대중 참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21일 조계종 총무원1층 불교회관에서 최근

조계사 불국사 등의 삼보장재 유실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백만불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가연대는 "사찰재정의 투명한 운영 및 사부대중 참여에 의한 사찰운영

을 조계종의 모든 사찰로 확산, 정착시키기 위해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재가연대는 이날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9월경 1차 서명운동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을 제·개정, 실시할 것을 총무원과 중앙총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 8월중 조계종 해암스님을



고산스님도 서명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21일 '사찰재정 투명화·사찰운영의 사부대중 참여'를 위한 운동이 서명하고 있다. 사진=고영태기자

부정부패 척결·개혁추진 촉구

고산스님등 종교지도자 청와대 예방 건의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을 비롯한 종교계 지도자들은 19일 청와대를 방문, 김대중대통령에게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 및 강력한 개혁추진을 촉구했다.

고산스님과 김동원 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상근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공동대표, 조경근 원불교 교정위원장, 최창규 성공관장 등 8명은 이날 김대중 대통령에게 드립니다"라는 건의서에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근절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도자들은 "공평한

분배 실현을 통한 사회정의 확립, 인권법 등 여러 개혁입법에 진력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또 △정쟁 즉시 중단과 개혁 추진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 △8·15 전 국민대화합을 위한 구속자 석방과 수배자 해제, 사면조치의 광범위한 단행 등을 요청했다. 종교지도자들은 또 "종교인의 대화합과 일치를 위해 2000년 3월 1일 '화해·평화를 향한 국내외 온겨레손잡기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통령은 "8·15를 앞두고 구속자 석방과 수배

해제가 많이 될 것이며, 부패방지법 인권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민주유공자보상법 인사청문회법 등의 개혁법안들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및 16일에는 '관람료 사찰'의 재정현황과 관람료수입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재가연대는 또 23일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과 22일 중앙총회 의장단을 방문해 서명운동에 협조를 것을 요청했다. 서명운동에 동참한 고산스님은 "사찰재정 공개 의무화를 직영사찰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구본사와 주요사찰 주지스님을 찾아 사찰재정의 공개와 사찰운영위원회의 구성도 촉구할 예정이다. 재가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조계종단과 검찰은 조계사 불국사 삼보장재 침탈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엄벌 △사찰재정의 정기적 공개 의무화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한 공법령의 제정 실시 △사찰운영위원회의 강력한 시행을 촉구했다. 김원우 기자 (wkwk@buddhapia.com)



20세기 빛낸 고승 기념메달

한국조계종사와 현대불교신론사가 공동으로 제작 보급하고 있는 20세기 고승 여덟분의 기념메달 1차분 세트가 출시됐습니다. 이 여덟 메달의 주인공은 만공 함암 용상 만해 경봉 청담 고암 성철 스님입니다. 500개 한정으로 출시되는 이 메달세트를 소장하셔서 큰스님들의 삶과 사상을 통해 신심을 다지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한국조계종사가 직접 디자인 조각해 품질보증하고 영구히 보존하는 메달입니다.
 ○가격: 날개 각 5만원 · 8분 세트 40만원(500개 한정)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 전화 (02)737-8881, 722-4162
 ○은행계좌: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006-01-0783-279
 농협 053-01-236053

공원입장권 당일사용 '새불씨'

조계종, 관람료사찰주지회의 열어 대책논의키로

조계종 관람료사찰주지회의는 29일 긴급회의를 열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입장권 사용변경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8월 1일부터 입장권 효력에 대해 '당해 공원 발매당일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한 한일 방침을 바꾸어 '당해 공원 발매당일'로 함에 따라 조계종과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0일 관

"불교TV 경영정상화 조계종 적극나서기로"

중단차원 공식 표명

관람료 사찰에 공문을 보내 방침 변경을 알렸다. 관리공단은 당해 국립공원 재입장시 이중 징수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어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에 사찰토지면적이 증가나 외곽에 위치한 내장사 신불사 백련사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조계종총무원장은 관람료사찰을 찾는 관람객에 대해 문화재 관람료를 새로 부과해야 하는 분리징수의 문제점을 낱을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성운 기자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은 23일 bnn특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불교TV 경영 정상화를 위해 특위위원장과 문화부장에 게 종단의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16일 열린 제8차 bnn특위에서 'bnn 경영정상화를 위해 종단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결의를 고산스님이 받아들인 것이다. 고산 총무원장의 이번 발언은 불교TV 경영 정상화를 위한 종단의 공식적인 의지를 처음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주일 기자

새연재 백두대간 속으로 14편

금주부터 새기획 '백두대간 속으로'를 월1회 연재합니다. 지난해 사진영상의 예를 맞아 연재했던 '백두대간 속으로'에 이어 기획된 '백두대간 속으로'는 우리 산하의 뛰어난 백두대간 내면을 깊숙히 탐험하는 속살기행입니다. 백두대간이 이땅의 가장 큰 생명원을 다시 확인하면서 민족정기와 정신을 쫓아가는 이 작업에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바랍니다.

안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윤장대(보물 제684호)에 願(원)을 실어 돌려라 ~ 이루어지리라



윤문사는 움직이는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9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보물 684호)

윤문사 가는길
 버스: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40분간격) 34간 10분 소요 → 예천에서 하차 → 택시(윤문사) 20분
 비행기: (서울 → 예천) 대한항공 오전 8시 45분 오후 5시 아시아나 오후 4시
 (예천 → 서울) 대한항공 오전 10시 10분 오후 8시 30분 아시아나 오후 5시 20분

예천군 윤문면 소백산에 신라시대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지켜온 법보대왕 윤문사가 있습니다. 1,200년동안 경전을 수호하고 널리 알리는 화엄대왕 윤문사의 사적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표하는 근본도량으로서 이천만불자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가 보존되어 있고, 대장전, 목불좌상, 목가행차 등 많은 국보급 보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구산선사의 5백명 스님들이 모여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선맥을 잇고, 고려 명종 때에는 3만명의 스님들이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재 대법회를 여는 동안 이러한 보물들은 함께 호국과 한국불교 중흥에 앞장선 불교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던 이 땅의 대다수 중생들에게 대장전의 윤장대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자상하고 지비로운 가르침을 일천년동안이나 살려 왔습니다. 모든 정성을 모아 기도하여 윤장대를 돌리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에게 폭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윤문사에서는 근대 이래 최초로 윤장대를 공개하여 윤장대 운전 대장경 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윤장대를 돌리면서 업장이 소멸되고 각자 구하고 원(願)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며, 남북통일과 IMF 국난극복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특히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전을 읽는 공덕을 지어 업장을 소멸하고 학업이 성취하며 사업이 번창하도록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 지 청 안 함 장
 · 입 재 : 1999(불기2543)년 10월 17일(음 9월 9일)토요일 오전 10시 · 회 향 : 1999(불기2543)년 10월 26일(음 9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 동(1인당) 10,000원 · 영가 위촉(1위당) 10,000원
 · 동참 온라인 구좌 농 협 : 747028-51-009313 예금주: 윤 문 사
 우 계 국 : 702191-0016235
 · 대장경을 읽고 법성도를 돌면서 윤장대를 운전하실 분만 동참금 1만원을 준비하십시오.
 · 당일엔 혼잡하오니 미리 전화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대한불교 조계종 소백산 윤문사
 문 의 : (0584)655-8695(중무소), 655-1010, 8405